

로마서: 함께 읽는 성경 공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은 믿음, 소속, 일상의 삶을 어떻게 바꾸나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를 설명하며,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그 빛 안에서 함께 살도록 부릅니다. 바울은 인간의 필요, 믿음을 통한 칭의, 성령 안의 삶,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실제적인 사랑을 차례로 다룹니다. 전체 흐름을 읽어 보세요. 신학적 논증은 공동체가 서로를 환영하고 복음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킵니다.

편지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읽기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그곳 신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전달한 뒤 서쪽으로 가려는 계획에 비추어 보면, 편지는 보통 서기 50년대 후반인 세 번째 선교 여행의 끝 무렵에 놓입니다. 고린도라는 집필지는 명시된 표제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재구성입니다. 바울의 직접 저작은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인사말은 편지의 이야기에 함께 속한 여성과 남성의 사역 관계망을 드러냅니다.

성경 참조: 롬 1:1-15 · 롬 15:22 - 롬 16:23

출처: primary, brown

논증 따라가기

논증은 죄와 심판에서 은혜, 화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9-1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는 삽입된 결가지가 아니라 논증의 핵심입니다. 12-16장은 긍휼을 예배, 공적 책임, 환대, 공동 선교로 옮깁니다. 선택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견해는 다르지만, 이방인의 교만을 경고하는 바울의 말은 분명합니다.

성경 참조: 롬 1:16-17 · 롬 8:1-39 · 롬 11:17-36 · 롬 12:1-2

출처: primary

기쁜 소식과 우리 모두의 필요

롬 1:1 - 롬 3:20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며 우상숭배, 왜곡된 욕망, 판단하는 태도, 위선을 직면하게 합니다. 1장에서 2장으로 이어 읽어 보세요. 남을 비난한다고 비난하는 자신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기독교 성윤리는 1:26-27을 동성 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본문으로 읽습니다. 더 넓은 논증은 모두에게 긍휼이 필요함을 드러내며 멸시를 금합니다.

생각해 보기

바울은 어떻게 독자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서 하나님 앞의 자기 책임을 살피는 일로 돌리나요?

은혜, 믿음, 아브라함

롬 3:21 - 롬 4:25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자랑을 배제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의 믿음을 보여 주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모두에게 논의를 엽니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들은 칭의와 내적 갱신의 정확한 관계를 다르게 설명하지만, 구원이 자력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생각해 보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는지에 왜 중요하며, 바울은 어떤 자랑을 배제하나요?

화해와 성령 안의 삶

롬 5:1 - 롬 8:39

하나님과의 평화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참여, 죄와의 싸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율법 설명은 악을 선으로 만들거나 거룩함을 선택 사항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과 부활의 소망은 고난을 바라보는 틀이 됩니다. 성령의 도움은 쉬운 삶을 보장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기

죄의 종으로 사는 것과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사이에 무엇이 달라지며, 소망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나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롬 9:1 - 롬 11:36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 인간의 응답, 현재의 불신을 넘어서는 소망을 연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택과 이스라엘의 약속된 구원을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감람나무의 이미지는 이방인 신자들의 우월감을 직접 경고합니다. 이 본문을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기

감람나무의 이미지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자신들을 지탱하는 백성과 약속에 관해 무엇을 기억하라고 요구하나요?

공적·사적 삶에서의 긍휼

롬 12:1 - 롬 13:14

예배는 몸으로 하는 섬김, 환대, 원수 사랑, 책임 있는 시민의 행동이 됩니다. 통치 권위에 대한 복종을 복수의 거부와 사랑의 의무와 함께 읽어 보세요. 불의한 통치 아래서 그 한계가 어디인지 그리스도인들은 논의합니다. 로마서 13장은 정부의 모든 행동을 선하다고 선언하거나 통치자를 도덕적 책임에서 면제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기

이웃 사랑과 복수의 거부는 사회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나요?

롬 14:1 – 롬 15:13

음식과 날에 대한 논쟁은 양심이 다른 신자들을 환영할 수 있는지 시험합니다. 바울은 강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기 내어주심을 본받아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논쟁적인 관행에 관한 것이지 모든 윤리적 명령을 무시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기

바울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를 기쁘게 하는 일과 단지 자기 권리를 고집하는 일을 어디서 구별하나요?

많은 사람이 함께 전한 복음

롬 15:14 – 롬 16:27

헌금, 스페인 계획, 뵤뵤 추천, 인사말은 신학이 협력의 형태를 취함을 보여 줍니다. 여성과 남성들이 후원자, 동역자, 함께 고난받은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유니아를 설명하는 말 등 일부 역할의 세부 사항은 논쟁적이지만, 이들의 존재와 존중받는 섬김은 계속 드러나야 합니다.

생각해 보기

여행 계획과 인사말을 읽기 전에 멈추었다면 누구의 기여를 놓쳤을까요?

출처

- [primary] Romans; primary biblical text. Reading references only; no Bible text is reproduced in this resource. <https://ebible.org/eng-web/ROM.htm>
- [brown] Raymond E.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Doubleday, 1997), chapter 24. Background and scholarly discussion; not an endorsement of every interpretation in this study.

자체 제작한 자료의 글과 이미지: CC BY 4.0. 성경 본문과 제삼자 자료는 제외됩니다.

Pauline Letters · CC BY 4.0 · <https://paulineletters.com/ko/explore/resources/study-romans>